

역사적 타자들에게 개입되는 환상성 연구*

류정월**

<차 례>

1. 들어가며
2. 차이의 형상화 - 비늘과 정기
3. 인물의 양가적 역할 - 영웅이자 반영웅
4. 환상의 해석 - 요소들의 통합과 가치 평가
5. 마치며 - 가변적 정체성의 증폭

<국문초록>

이 논문은 역사적 인물들, 특히 역모와 관련되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인물들의 설화에 나타나는 환상적 특징을 연구한다. 역사적 타자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들의 자질과 행적을 긍정/부정, 실제/허구의 차원에서 읽어내는 것이었다. '실제/허구'함이 사건, 인물, 배경의 형상화 차원이고, '긍정/부정'함이 항유자의 인물에 대한 정서적 반응 혹은 세계관의 차원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항들의 관계는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이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역사적 타자들의 설화를 다른 설화들과 차별화하는 해석의 메타적 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우선 역사적 타자의 설화들에서 인물 형상화 방식을 연구하고, 이어서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유형군(기호계) 속에서 이들의 역할을 살펴본다. 역사적 타자가 등장하는 설화에서 주인공들의 형상화는, 가시적으로는 비늘과 날개, 비가시적으로는 '정기'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환상적 자질들은 해석자에 따라 긍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다. 또한 역사적 타자들은 동일한 기호계 내에서 영웅으로, 혹은 반영웅으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형상화 방식과 서사내 역할을 통

* 이 논문은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5-079-AS0107)을 받아 작성되었음.

** 서강대, 대우교수

해 볼 때, 이들에 대한 단일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의 자질을 한 가지로 통합하여 평가한 후에야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통합 과정은 역사적 주체들의 설화를 향유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해석적 틀이다. 통합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해석적 틀의 존재로 인해,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 즉 역사적 인물 설화의 향유자들의 정체성에는 특수한 부분이 생긴다. 바로 가변성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이들을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서사를 통해 구성되는 향유 집단의 정체성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역사적 타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에 대한 영웅화가 반영웅화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이 사실이 역사적 타자 설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정체성의 가변성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향유집단이 역사적 타자들에 대해 이중적, 양가적 평가를 하는 것은, 환상이 해석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최종적 해석을 모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역사적 타자, 환상, 실제/허구, 긍정/부정, 형상화 방식, 기호계, 역할, 영웅, 반영웅, 통합, 해석, 정체성.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역사적 인물들, 특히 역모와 관련되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인물들의 설화에 나타나는 환상적 특징을 연구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역사적 인물들은 이몽학, 김덕령, 정여립, 허균, 남이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기존논의에서 ‘저항적 인물’, ‘비극적 인물’, ‘비극적 장수’로 명명되었다. 이 인물들은 실제로 반란 혹은 저항의 의지를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어떤 이들은 장군이지만 어떤 인물은 문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역사적 타자’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타자’들은 여러 층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으로는 노인과 어린 아이가, 계층으로는 하층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

는 타자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대상으로 다루는 인물들은 남성이면서, 비교적 젊은 날에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다수이기에, 연령으로 따져서도 노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다가 양반의 신분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타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 서술의 관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들은 지배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 정사(正史)에서 악한 인물로 형상화된다는 의미에서 타자이다. 또한 그들에 관한 공공연한 언급이 기피되고 기록들은 말소된다는 의미에서 타자이기도 하다. 즉 이들을 타자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역사적 혹은 정치사적으로 부정성과 불완전성의 자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존논의는, 이들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에서 출발, 설화 전승에 나타난 향유자들의 역사 의식을 추출하는 데 많이 할애되었다. 윤재근은 김덕령 전승에서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통해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적 민중의식을 읽어냈다.¹⁾ 강현모는 비극적 인물들이 무(武)의 자질과 지(智)의 자질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이 괴리가 향유자들에 의해 메워지지 않았다고 보면서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치환할 수 없는 ‘민중의식의 한계’²⁾를 언급했다. 그런가하면서 임철호는, 문헌 설화에서는 김덕령의 과장된 용력이 부각되며 구비 설화에서는 김덕령의 비극적 죽음 등 비극성이 강조된다고 보고, 그 원인을 문헌 설화 담

1) 윤재근, 「김덕령전승연구1」, 『어문논집』, 26집, 민족어문학회, 1986. 이후 논문에서 그는 연구 대상을 이몽학, 김덕령을 비롯하여 한문 단편에 등장하는 역도들로 확대한다. 이들을 ‘저항적 인물’로 명명하고 이들에 대한 향유자들의 긍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향유자들이 이들을 ‘민중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윤재근, 「조선시대 저항적 인물 전승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2) 강현모, 「이몽학 설화의 연구」, 『한국학논집』 13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73면. 같은 맥락에서 강현모는 실패한 영웅담의 서사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성공한 영웅들의 것과 달리, 성공과 좌절의 측면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서 통합된 형태로 기술되거나 구술된다는 것이다.

당계층의 역사의식 결여와 소극적 운명관에서 찾고 있다.³⁾ 설화 담당 계층의 차이에서 역사의식의 차이를 언급한 것은 조용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정여립에 대한 문헌과 설화를 살펴보면서 문헌 설화는 사료의 현실 인식 방법을 따르는 반면, 구비설화는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결론짓는다.⁴⁾ 비극적 인물들을 전승하는 향유자들의 역사 인식을 고찰하는 것 외에 기존논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실제 행적과 설화 상의 사건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의 전승에 사실성과 허구성이 역동적으로 맞물리고 있다는 신동훈의 논의⁵⁾나, 역사와 설화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전승자들의 심리가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조영주의 논의⁶⁾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역사적 타자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들의 자질과 행적을 긍정/부정, 실제/허구의 차원에서 읽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 항들의 관계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허구’의 항이 사건,

3) 임철호는 김덕령 설화를 문헌설화와 구비설화로 나누어 연구하면서 인물의 자질에 나타나는 괴리를 설명한다. 임철호, 「김덕령 설화 연구」, 『한국언어문학』 22집, 한국언어문학회, 1988.

4) 조용선, 「정여립 설화에 나타나는 현실인식에 대한 고찰」, 『겨레어문학』 37집, 겨레어문학회, 2006.

5) 신동훈은 김덕령 전승이 “객관적·주관적 두 측면에서 사실성과 허구성이 역동적으로 맞물리”는 경우로 보고 있다. “객관적(서사 내용) 측면에서 허구적 요소가 두드러진 데 대하여 주관적(전승 태도) 측면에서는 사실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자는 원심력으로, 후자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면서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pp.154-155.

6) 가령 조영주는 김덕령 설화의 허구적 경향으로 ‘자아도취적 성향’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용맹스럽다고 알려진 장군의 모습에 설화 전승자들이 나약한 자아를 지닌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시킨 결과라고 본다. 조영주는 나아가 이러한 허구화로 인해 김덕령 설화가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 허구화가 남성들의 대장부 콤플렉스를 완화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영주, 「김덕령 설화 전승 연구」, 『겨레어문학』, 36집, 겨레어문학회, 2006, p.258.

인물, 배경의 형상화 차원이고, ‘긍정/부정’의 향이 향유자의 인물에 대한 정서적 반응 혹은 세계관의 차원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항들의 관계는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이 두 의미항들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역사적 인물 설화를 다른 설화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생성시키는 해석의 메타적 틀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역사적 인물 설화에 환상이 개입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기존논의와 달리, 실제 역사의 설화적 형상화 차원에서 ‘허구’가 아니라 ‘환상’⁷⁾을 언급하는 것은 허구적 상상력이 가장 극대화된 지점이 환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적 인물들의 설화에 부여되는 환상은 매우 중요하다. 환상이 개입되는 것은 설화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 설화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생성되기에 환상이 개입하는 설화를 구술하는 것은 생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지점을 정식화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환상적 모티프는, 역사적 설화의 향유자들에게는 해석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 지점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환상적 표지들에 집중된 해석적 역량이,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 해석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개별 텍스트들을 통해 역사적 타자들에게 환상적 속

7) 환상과 허구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역사를 소재로 한 텍스트에서 그 차이와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임순은 역사 소설을 대상으로, 허구성이란 역사성을 한 축으로 하는 허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환상성은 역사성과 허구성이라는 안정되고 관습화된 관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역사소설의 자기 혁신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 논의에서 환상성은 역사성과 허구성 간의 안정된 경계를 교란하는, 두 관계를 반성적으로 고구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임순, 『‘환상적’ 역사 소설』, 『서강어문』 15집, 1999. 이 논의는 허구성과 환상성의 차이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역사 인물 설화에 나타나는 환상성을 작가 개인의 반성적 의도로 귀결시킬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역사 인물 설화의 환상성과 허구성이 대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성이 부여되는 방식을 인물 형상화를 통해 살펴본 후, 조금 더 확대시켜 동일한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설화의 기호계 속에서 역사적 타자들의 역할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살펴볼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향유자의 반응과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향유자의 반응을, 해석이 산출되는 기본 틀로 수렴하면서 최종적으로 환상적 속성들의 의의를, 향유집단의 정체성 문제로 논의하려고 한다.

2. 차이의 형상화 - 비늘과 정기

모든 환상적 속성들이 이들을 타자화하는 데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김덕령이 하루 아침에 무등산을 들고 온다거나 이몽학이 홍수로 불어난 강을 뛰어넘는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환상적 요소들은 주로 주체들이 가지는 자질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된다. 이것은 영웅적 주인공의 행적을 서술하는 대표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역사적 인물들에게 결부되는 환상적 모티프 가운데 일부가 이들을 타자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을 타자화하는 환상적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역사적 타자로 형상화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 김덕령이다. 김덕령은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하여 일본군들 사이에서도 가장 무서운 의병장으로 생각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간신들의 모함으로 이몽학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된 후 국문 끝에 옥사한다. 김덕령 설화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죽음 관련 설화를 보면서 역사적 타자들의 인물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자.⁸⁾

8) 다음은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김덕령 장군의 죽음 관련 설화의 자료목록이다.
『구비문학대계』 1-7,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설화 64, <김덕령장군 일화>

김덕령은 (아버지의 상중이라 전투를 하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잠깐 전쟁 구경을 하고 오겠다고 나가서 도술을 부려 왜적들을 쫓아낸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적들을 완전히 무찌르지 않았다거나,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죄목을 붙이고 그를 잡아들인다. 그는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잡힌다. 조정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갖은 수단을 쓰지만 그는 죽지 않는다. 이때 김덕령이 ‘만고충신 김덕령’이라는 현판을 만들어 준다면 (또는 족보에 ‘만고충신 김덕령’이라고 기록해준다거나 ‘만고충신 김덕령’이라 새긴 비석을 세워준다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요구를 들어주자 그는 자기 몸의 비늘(날개)을 보이며 그곳을 치라고 알려준다. 말한대로 하자 김덕령은 죽는다. 그가 죽은 후 현판의 글씨를 없애려 하였으나(또는 족보에 쓴 이름을 지우려 하였으나 혹은 비석을 쓰러뜨리려 했으나) 그럴수록 글자가 더욱 명확해져서 없앨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김덕령의 환상적 자질은 도술을 부릴 줄 아는 것과, 죽여도 죽지 않는다는 현상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현상들은 모두 한 가지 원인에서 기인하는데 바로 몸에 붙어 있는 비늘(날개)이 그 힘의 원천이다.⁹⁾ 그가 가진 ‘차이’는 이렇게 신체에 각인되어 있다. 이 날개 혹은

『구비문학대계』 2-5 강원도 양양군 서면 41, <김덕령 장군을 죽인 간신>

『구비문학대계』 2-7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24, <만고충신 김덕령>

『구비문학대계』 5-1 전라북도 남원군 송동면 4, <김덕령 장군 일화>

『구비문학대계』 5-2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38, <만고충신 김덕령>

『구비문학대계』 5-2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16, <김덕령 일화(2)>

9) 김덕령의 죽음 관련 설화에는 그를 죽이려 해도 죽지 않자 ‘만고충신 김덕령’이라는 현판 글씨를 요구하고 어깨 밑에 비늘 세 개를 떼어 내고 삼년 묵은 절구대로 세 번 때리라고 알려주고 죽는다. 떼어내야 할 것이 비늘이나 날개로 나타나며 그것의 위치도 판본에 따라 다양(발바닥, 겨드랑이, 장딴지, 정강이 등)하며 때리는 물건도 다양

비늘의 존재는 그가 가지는 힘의 근원을 동물과의 관련성, ‘동물스러움’에서 발견하게 한다.¹⁰⁾

그의 특수한 형상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환상적 능력은 등장인물들에게 두 가지 정서를 야기한다. 조정에서는 그가 도술을 부리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전쟁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체포한다. 그의 신이한 능력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전제되는 것이다. 인물 세계에서 그의 능력이 긍정적인 것으로 읽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정서를 읽어 낼 수도 있다. 김덕령이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현판(죽보, 비석)에 쓰인 글을 지우려 하지만 그것은 계속 되살아나면서 불가항력적 힘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반응은 텍스트에 명시되지만 않지만 인물 세계에 두려움의 정서를 야기했을 것이다.¹¹⁾

역사적 인물의 형상적 특징 가운데에는 이렇게 외부에 명시화되어 나타나는 것, 신체에 각인되어 있는 것보다 더 자주 포착되는 것이 있다. 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그를 구성하고 있는 ‘정기’와 관련이 있다. 역사적 타자들이 가지는 ‘차이’는 신체적으로 각인되지 않더라도 ‘정기’의 형식으로 그의 몸 어딘가에 남아 있다. 뱀의 정기를 타고난 인물이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유형이며, 김자점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김자점 아버지는 신관 사또마다 죽는 고을에 사또를 지원한다. 그는 밤

(복숭아 나무 가지, 개뿔대 등)하다.

10) 리처드 커니는 타자와 에이리언을 구별한다. 그에게 ‘타자’는 존중하고 환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질성을 의미한다. 반면 에이리언은 차별(외국인은 아니지만, 이민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기에 순수한 자국민들과는 구분되는 대상), 의혹(UFO와 같은 불법적이며 환영받지 못하는 침략자들), 희생(외국인 혐오증, 인종 차별주의, 반유대주의의 대상)의 대상을 말한다. 리처드 커니 저,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11) 리처드 커니의 말을 빌면 ‘신성하고 잔혹한 타자가 가진 기본적인 패러독스’는, ‘두려움’과 ‘매혹’이다. 리처드 커니 저, 이지영 역, 위의 책, pp.17-18.

에 담배를 피워서 이물을 쫓고는 이물에 명주실을 꽂아두었다. 다음 날 명주실이 꽂힌 곳으로 가니 커다란 지렁이가 있었다. 그 지렁이를 잡아서 죽이고 불에 태웠다. 그 연기가 쏘이자 눈에 벌건 김이 서렸다. 동침하고 나니 그 김이 없어졌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김자점이라는 이야기이다. 김자점은, 커다란 지렁이의 정기를 타고 난 인물로 형상화 됨을 알 수 있다.

사또 눈알 자구니에 벌건 짐이 서렸단 말이야, 이상스럽게. 그래, “그 전후 말하여라.” 허니까는 “아 큰 고민이 있다.” 고 사또는 이제 참 내방으로 불렀단 말이야. 그래 불러 들였는데,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집에서 부인허구 동침하고 하루 저녁 자구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없어졌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날 저녁에 이상스럽게 자기 마누라가 태기했단 말이야. 그래 열 달만에 얘기, 김자점이, 자점이라는 것은 점이 있어서 그 유래가 그렇게 된 얘기에요.¹²⁾

남이 장군 역시 뱀의 정기를 타고 난 인물로 형상화된다. 남이의 부친이 강원도 감사로 있을 때 금강산의 한 절에서 뱀을 잡아 불에 태웠다. 그 연기가 한 기생에게 갔는데, “내 가까이 갔다 봐야 날 언제 해롭기 하는 걸 안다”고 생각해서 기생을 가까이 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남이다.¹³⁾ 판본에 따라서, 남이 장군은 지네의 정기를 타고난 것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¹⁴⁾

허견의 탄생설화도 이와 유사하다. 허견의 아버지가 절에서 공부하면서

12) <김자점 이야기>, 『구비문학대계』 1-7, 강화군 화도면 설화 13.

13) <뱀의 정기를 타고난 남이장군>, 『구비문학대계』 7-11, 군위군 군위읍 설화.

14) 남서방이 사는 마을에 1년마다 15세 처녀들을 지네의 재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다. 새로운 훈장 선생이 피를 내어 지네를 유인한 다음 올라미로 지네를 가두어 기름 가마에 넣고 끓였다. 이때 지네가 죽으면서 녹은 물이 남서방네 집 쪽으로 갔다. 선생이 가서 보니 남서방이 내외간 동침을 한 후였다. 남서방이 자식을 얻었는데 남이라고 이름 지었다. <남이장군>, 『구비문학대계』 3-1, 중원군 주덕면 설화.

스님들을 잡아먹던 이무기를 죽인 후에 불에 태우니, 그 연기가 집으로 갔다. 부인과 동침하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허견이라고 하였다.

김자점, 남이, 허견의 이 이야기들은, 인물들의 신이한 탄생을 암시하기 위해 쓰이는 이류교혼 모티프와는 다르다. 이들의 결합은, 사람과 이물의 결합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기에 이류교혼이라고 할 수 없다. 남녀의 결합이기는 하나, 이들의 결합은 그렇다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다. 이물의 ‘정기’가 들린 남성 혹은 여성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이 ‘정기’는 등장인물의 세계에서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자점의 아버지는 김자점의 태생에 대한 의심으로 그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는다.¹⁵⁾ 그가 글을 알게 되면 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서이다. 남이 부친은 아들이 뱀의 새끼인 것을 알고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 몰래 숨기도 하지만 끝내 죽고 만다. 이들의 행동은, 역사적 타자들이 동물의 정기, 그것도 이무기나 뱀, 커다란 지렁이, 지네의 정기를 타고 났기 때문에 행동이 남다른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등장인물들의 예측은 적중해서, 김자점은 배우지 않고도 과거에 장원하는가 하면 남이는 귀신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

그런가하면 역사적 타자 가운데에서 허균은, 어떤 동물의 ‘요정’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역적 허균은 총명하고 영특하였다. 나이 아홉 살에 능히 시를 지었는데 매우 아름다웠다. 여러 어른들이 이를 칭찬하며 말했다.

15) “아버지가 이걸 생각하고 자기 아들은 글을 안 가르쳤어요...이 김자점이 역적 노릇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아버지는 벌써 그걸 생각하고 벼슬을 안 시키도록 허게 그레 벼슬을 못 시키게 사양을 했는데 위에서 받아줬지. 때문에 난 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렇게 된 녀석들이예요.” <김자점 이야기> 앞의 책.

“이 아이는 훗날 응당 문장에 뛰어난 선비가 될 것이다.”

유독 자형인 간의 우성전만은 그의 시를 보고 말했다.

“뒷날 비록 문장에 뛰어난 선비가 된다 할지라도 허씨 가문을 뒤엎을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

허균이 종사관이 되어 원접사 유근을 따라 의주에 갔는데, 당시 영위사 신희이 그와 날마다 만났다. 고서를 두루 읽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유·불·도 삼가의 책에 이르기까지 쫓는 곳마다 시원하게 통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당해 널 사람이 없었다. 신희이 물러나와 탄식하며 말하길,

“이 자는 사람이 아니다. 그 모습 또한 우리와 다르니, 필시 이는 여우·너구리·뱀·쥐 같은 따위의 정령일 것이다.”

라고 했으니, 식자의 명감(銘感)이 이와 같다.¹⁶⁾

여우, 너구리, 뱀이나 쥐의 ‘요정’이라는 것은 탄생 때부터 인물의 핏속을 흐르게 되는 정기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인물이 가지는 자질을 동물과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⁷⁾ 역사적 타자들이 가지는 남다른 총명함은 찬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가문을 뒤엎을 불길한 것, 인간간으로는 흉내 내기 어려운 수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16) 逆賊許筠 聰明英發 生九歲 能作詩 甚佳 諸長者稱譽之曰 此兒他日當作文章士 獨其姊婿禹諫議性傳 見其詩曰 異日 雖作文章士 覆許宗者 必此兒也 及筠爲從事官 隨遠接使柳根到義州 時迎慰使申欽 日與相會 聞其博誦古書 至如[於] 儒道釋三家書 無不觸處洒然 人莫能當也 欽退而歎曰 此子非人也 其狀亦不類 必是狐狸蛇鼠等物精也 識者知明鑑如此. (『於于野談』 3卷).

17) 허균의 형상을 동물과 관련시키는 이야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광해군 때에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역관들이 말하였다. “이이첨과 허균은 그대 나라의 존귀한 신하이나, 이이첨은 가을 바람에 울고 있는 여자의 상이고, 허균은 늙은 여우가 결박된 상이오 그 밖의 재상들도 또한 모두 불길하고, 여러 신료들의 얼굴에 살기를 매우 짙게 띠고 있으니 그대 나라의 임금이 무사할 수 있겠소?” 오래지 않아 그 말이 모두 증명되었다. 光海朝 天使之東來也 語譯輩曰 李爾瞻許筠 汝國貴臣 而李則秋風泣女之相 許則老狐被縛之相 其他宰相 易皆不吉 而百僚之面 帶殺氣甚多 汝國(王)其得無事乎 久而其言皆驗. (『記聞叢話』 5권, 621화, 473면).

이렇게 역사적 타자들은 신체에 각인된 징표나 은밀한 형식의 남다른 기운을 가질 수 있다. 동물적 정기를 가진 인물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반응은 뛰어남에 대한 기대나 인정-매혹-과, 그것이 야기하거나 야기할 상황에 대한 염려-두려움-로 정리된다. 역사적 타자들의 형상적 특징은, 등장인물들에게 양가적 정서를 야기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적 형상들은 수용자들이 역사적 타자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긍정과 부정의 양가적 감정을 갖도록 하는 기제가 된다. 역사적 타자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는 서사군에서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자.

3. 인물의 양가적 역할 - 영웅이자 반영웅

역사적 인물에 관한 문헌 설화와 구비 설화들, 각각의 유형과 판본은 하나의 기호계(*semiosphere*¹⁸⁾)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기호계의 특징이 그렇지만, 특히나 이 역사적 타자들의 설화로 구성된 기호계는 다종적이며 이질적이다. 이 기호계의 다종성과 이질성은 동일한 역사적 인물들

18) 로트만은 문화적 모형을 확장하여 기호계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문화 자체를 공간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담겨진 용어이다. 기호계는 인간의 기호학적 행위에 선행하는 기호학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그에 따르면 기호계는 문화 발전에 있어서 결과이며 조건이다. 이 기호계는 양향성과 비대칭성이라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기호계는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특징지어지기에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틀이 필요하다. 이것이 양향성이 된다. 그리고 기호계의 구조는 신체와 마찬가지로 비대칭적이며 이 비대칭성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기호계의 양향성과 비대칭성은 기호계의 공간을 구분짓는 경계를 전제로 한다. 경계를 통해 구분된 양향 사이의 관계는 통일적이면서도 비대칭적인 모순적 관계를 갖는다. Yuri M. Lotman,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p.14-15.

이 동일한 설화 유형 내에서 상반되는 역할을 할 때 극점에 달한다.

① 임경업이 태어나 일곱 살 때 밤이면 강 위 층벽에서 턱걸이를 하는 것을 누나가 보고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여 그를 해롭게 하고(발 뒤꿈치와 어깨를 파 버리고), 나라에서도 이를 알고 없애 버렸는데, 없어지고 일주일 후에 용마가 나타났으나 주인을 만나지 못해 죽었다.¹⁹⁾

② 임경업이 어릴 때 병정놀이를 하는데 박씨 과부 아들이 있었다. 그는 임경업보다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억지로 머리를 빗기는 바람에 약속된 시간에 늦었다. 임경업이 그 아이의 목을 쳐 죽게 되자, 아이는 어느 곳을 지정하여 묻어 달라고 하면서 콩과 팥을 세 말씩 함께 묻되, 백일이 되기 전에는 발설하지 말라고 하였다. 경업은 아이가 죽은 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과부에게 찾아가 아이 묻힌 곳을 알려 달라고 하여 파 보니, 그 날이 98일째 되는 날로 군사 수백 명이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²⁰⁾

③ 남이가 어린 시절에 길거리에서 놀다가 나이 어린 계집종이 조그만 상자를 보자기에 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자기 위에는 화장한 귀신이 앉아 있었다. 마음 속으로 괴이한 생각이 들어, 그 계집종이 들어가는 어느 재상 집으로 따라갔다. 잠시 후에 그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집 남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였다. 남이는 자신이 남자를 살리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간다. 남이가 처음 대문에 들어섰을 때 화장한 귀신은 남자의 가슴 위에 앉아 있다가 남이를 보고는 즉시 달아났다. 그러자 남자가 일어나 앉았다. 남이가 나가자, 남자는 다시 죽는 것이었다. 남이가 다시 들어가자, 남자는 도로 살아났다. 그 남자는 바로 상국 권람의 넷째 딸이었다. 그녀는 남이에게 시집을 갔다.²¹⁾

④ 남이 장군은 어려서 매우 영악했다. 글방에 다녀오다 보니까 한 여자가

19) 『구비문학대계』 7-10, 봉화군 명호면 설화 3.

20) 이윤석, 「임경업 전설의 연구」, 『연구논문집』 31집, 효성여자대학교, 1985, 이윤석 채록 63, 충주시 풍동 임연식 채보.

21) 『기문총화』 5권, 569화.

보리방아를 찧는데 그 여자의 짓이 보였다. 욕심이 나서 방으로 끌고 가려다 여자가 반항을 하자 그만 죽어 버렸다. 후에 벼슬길에 나아가 상소를 올렸는데 죽은 여자 귀신의 장난으로 시의 내용이 '나라를 평정한대[平國]'에서 '나라를 얻는다는 것[得國]'으로 바뀌어서,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했다.²²⁾

①에서 임경업은 아기장수 설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반면 ②에서는 아기장수를 해치는 적대적 인물로 등장한다. ③에서 남이는 귀신을 알아보고 퇴치하는 인물이다. 그 결과 처녀는 죽음을 모면한다. ④에서는 남이는 남의 부인을 죽이고, 부인의 원귀에 의해 해를 당해 죽게 된다. 그는 죽음을 초래하기도 하고 죽음을 막기도 하며 귀신을 해치기도 하고 귀신에 의해 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주인공의 신이함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운한 결말을 맞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①과 ②는 아기장수 설화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아기장수 설화는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빌려 전승되기도 한다. 아기장수의 적대인물로는, 아기장수 우투리, 동구리를 죽인 대조영, 이성계를 비롯하여 경북 영양군 청기면 모싯골의 남매 도적 아룡과 자룡을 죽인 남이 장군,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동구리와 고성리의 삼별초 장군 김통정을 죽인 김방경 장군 등이 있다.²³⁾ 대조영과 이성계는 각각 발해와 조선의 건국 시조이므로 자신의 건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아기장수를 죽인 인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김방경이 대몽 외교에 장애가 된 삼별초의 장수를 죽였다²⁴⁾고 할 때에도 둘의 적대적 관계는 설득력을 가지고 설명될

22) 『구비문학대계』, 273-275면.

23)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p.162.

24) 김군태, 「비극적 장수 설화에 나타난 공통삼화의 서사적 의미와 기능」, 『역사민속학』, 6호, 역사민속학회, 1997, p.195.

수 있다. 아기장수 설화에서 아기장수 자리와 그를 죽인 적대 인물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적대 관계가 설정될 수 있기에 인물의 역할이 뒤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임경업의 경우처럼, 한 인물이 아기장수로 그리고 적대인물로도 동시에 기능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²⁵⁾

남이는 앞서 언급한 설화에서 뱀의 정기를 타고난 인물로 설정된다. 이 설화 뒤에 남이가 손각시를 퇴치하는 이야기를 구연한 화자가 있었는데, 이 설화는, 남이가 남다르게 탄생했기에 귀신 퇴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따른다. 이물 퇴치 설화를 살펴보면, 뱀의 정기를 타고난 인물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구연된다. 부정적인 뱀의 정기를 타고난 인물을 알아보고 그를 퇴치하는 데 성공하는 인물들이 역사적 실존 인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정령이나 서화담 같은 이인들이 그 퇴치의 주체가 된다. 이인들이 퇴치의 대상으로 자리바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귀신 설화에서도 그들을 퇴치하는 유학자나 이인들은 대부분 승리하며 원귀에 의해 해를 당하지는 않는다. 반면 남이는 퇴치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물 퇴치 설화와 귀신 설화의 전통 속에서 남이가 차지하는 위상 역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 타자들 가운데에는 서사 속에서 역할이 양가적이며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²⁶⁾ 하나의 기호계 안에서 주체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며 영웅이 되기도 하고 반영웅이 되기도 하는 역사적 타자들의 행적은, 이들에 대한 향유자들의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25) 많은 판본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외성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한다. 역사적 타자들에 대한 향유자들의 인식의 근간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26) 역사적 타자이기는 하지만 허견과 김자점처럼 그 행적이 부정적으로 일관되는 인물들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이 불온한 것임을 암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이들의 역사적 행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별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4. 환상의 해석 - 요소들의 통합과 가치 평가

의미는 텍스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피스크의 말을 빌리면, “해독을 통해 메시지상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깡통따개를 사용하여 뚜껑을 여는 것과는 다르다.”²⁷⁾ 의미들은 텍스트와 수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되기 때문에 의미 산출을 위해서는 텍스트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호작용을 살펴볼 일환으로 이 장에서는 먼저 향유자들이 역사적 타자들에게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구연자들은 구연하는 서사의 내용에 따라 역사적 타자들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가령 이몽학의 힘내기 설화를 구연하는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에 누이를 죽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로 일관하지만, 그가 강을 건너는 신이함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장사’라고 인정하며 긍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타자들의 설화에서는, 동일한 서사 내용에 대해서도 향유자들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가령 김덕령 장군의 조상묘에 대한 설화를 보자. 이 설화에서 김덕령의 부친은 중국 지관의 요청에 따라 달걀을 준다. 그는 땅에 달걀을 묻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지관 몰래 엿보다가 땅에서 병아리(닭)가 나오는 것을 목도한 김덕령의 부친은 지관이 없는 사이 조상묘를 이장한다. 김덕령 장군의 조상묘 설화를 구연하는 향유자들이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는 상이하다.

① “그래갓고 그 피를 쓰고 김덕령 장군이 낫다고 그래. 그래갓고 김덕령 장군이 그렇게 신비한 양반이었던래...거기서 그 뒷자리에서 발흥을 맞고 나와서 그런 날개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여.”²⁸⁾

27) 존 피스크 저, 강태완·김선남 역, 『문화커뮤니케이션론』, 한뜻, 1997, pp.281-282.

28) <김덕령과 계란>, 『구비문학대계』 6-9, 전남 화순군 이서면 설화 41.

② “지관이 주지 않는 것을 자기가 몰래 도둑질해서 쓴 것이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게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김덕령 장군이 큰 인물은 큰 인물이었고 장사는 큰 장사였지마는, 끝에 가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끝에 출세를 못했다는 이야기요.”²⁹⁾

땅이 신비한 자질을 가진다는 생각과,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 신비한 땅에서 뛰어난 인물이 출현한다는 관계 설정은 모두 환상적이다. 이러한 환상의 개입을 통해 화자들이 의미화를 발견하는 지점을 살펴보자. ①에서 화자는 김덕령 장군이 좋은 묘자리를 썼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묘자리의 기운이 장군의 신비한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구연한다. 반면 ②에서는 지관이 주지 않는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끝내 출세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같은 서사라 하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주인공의 ‘신이함’을 설명하기도 하고, ‘실패’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김덕령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신이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환상적 상상력은 신이한 자질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동한다. ①처럼 신비한 땅에서 태어나 신이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렇게 환상의 개입은 인물들의 자질에 대한 화자의 긍정-부정의 평가를 야기하게 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지만, 좀 더 중요하게는 화자의 명확한 평가를 알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김덕령의 죽음 관련 설화와 용마 설화³⁰⁾를 구술할 때 화자들의 논평을 보자.

29) <김덕령 장군 오뇌 힘내기>, 『구비문학대계』 6-8, 전남 장성군 북하면 설화 24.

30) 용마 설화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수가 타고 다니던 말이 빠르기를 시험한다. 활을 쏘아 화살이 먼저 가나 말이 먼저 가나를 내기하는 것이다.

“만고의 역적이 충신을 나온기여”³¹⁾

“그 족보에다가 문가충신에 김덕령이라고 인제 그걸 써놨대는구만. 그러 니깐두루, 다리쪽에서 비늘 시(세) 개를 띠더니 그냥 지가 죽더래요. 그래 충신 노릇 못한 놈이 족보에 올라가니깐, 그걸 다시 질러구(지우려구) 허니 깐 지는대루 글짜가 점점 더 또릿또릿하게 나왔대는구만. 그래서 그 유래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지.”³²⁾

김덕령이가 가서 영마 타고 가서 활촉이 안내려오네. 그렇게 영마를 칼로 목을 탁 쳐봉께 활촉이 딱 찍히드라. 그래갖고 김덕령씨가 충신은 충신이어 도 행세를 못허고, 성안 김씨가 저 충장군 김씨 김씨 그러제. 출세를 못허고 말았다네.³³⁾

향유자들은 김덕령에 대해 ‘만고의 역적이 충신을 낳았다.’, ‘충신이 아닌데 충신이 되었다.’, ‘충신은 충신이었으나 행세를 못했다’고 말한다. 이 어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과 역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법은 이들을 충신으로도 역적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일단 우리는 그것을 해석의 모호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일차적으로 해석은 수용자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윤리적 가치를 중시할 때, 김덕령의 조상묘는 그의 부정적 자질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가치관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 일반론이라면, 이 역사적 타자들에 대한 해석에는 특수한 부분이 있다. 그들과 관련된 환상적 사건이 모호하며 이중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

도착해보니 화살이 보이지 않아 말을 죽였는데 말을 죽이고 나니 화살이 날아왔다. 장군은 용마를 죽인 것을 알고 좌절하거나 자살한다.

31) <김덕령 일화(2)>, 『구비문학대계』, 5-2, 전북 완주군 운주면 설화 16.

32) <김덕령장군 일화>, 『구비문학대계』 1-7,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설화 64.

33) <김덕령 장군 일화(1)>, 『구비문학대계』 6-9,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96.

능을 하는 것이다.³⁴⁾

앞서 언급한 비늘과 정기 같은 동물적 표지, 조상묘와 그 묘의 영향을 받는 인물의 자질, 스스로 비늘을 떼어 낸 죽음, 화살보다 빨리 달리는 말의 존재는 모두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모호한 기호들이다. 이런 환상적 기호들은 바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 역사적 타자들에게 이런 환상적 기호를 결구시키는 이야기 구성은 이들의 행적에 동시대인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면성을 가지는 속성들이 때로는 부정으로 기울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으로 기울기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향유자들이 이들 기호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판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뱀, 여우, 쥐 등이 역사적 타자들의 정기를 구성한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동물들이다. 민속에서 이들 동물들은, 지적으로는 영특하나 요사스러운 성품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적 타자들의 형상화 방식에는, 이중적 자질, 특히 지적·정신적 자질과, 정서적·성격적 자질 사이의 모순이 혼용되어 있다고

34) 용마 설화에 대해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용마를 죽인 장수라는 점, 즉 말의 죽음과 자질의 성급함을 연결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해내기도 하는 반면 말이 간발의 차로 죽었다는 데에서 시기 상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기도 한다. “정여립이 제비산에서 천일기도를 마친 후 용암 마을의 용마위 아래에서 용마를 얻었다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야. 정여립이 용마를 타고 활을 쏘아 용마와 화살이 누가 빠르냐 시합을 했다지. 그런데 하루는 용마가 화살을 쫓아 달리다가 그 화살의 진행방향을 놓친 듯 찾지 못했다지. 정여립이 대로한 나머지 말에서 내려 장검으로 용마의 목을 쳐버렸다야. 그 순간 화살이 뒤에서 날아와 용마의 궁둥이에 박혀버렸다. 용마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정여립이 용마의 시체를 선산 앞들에 묻었고, 그 뒤로부터 용마 무덤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지.” …… “우리 사회의 말 문화는 일반적으로 용이 꿈이 꿈꿨던 것이 간발의 차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데, 정여립의 용마에 관한 전설 역시 정여립의 진보적인 사상이 시기상조였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정일, 『지워진 이름 정여립』, 가람기획, 2003, p.39.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의 형상적 특징을 A(긍정)이자 B(부정)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땅, 화살보다 빠른 말 등 신성한 것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신성한 것들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탓에 실패한다는 논리를 가진다. 이들 서사의 논리는 'A'(긍정적인 면)가 있으나 결국 B'(부정적 결과)가 되다'로 귀결된다. A(A')가 B(B')를 통합한다고 볼 경우 향유자들은 이들이 뛰어난 자질을 가졌으나 비극적 결과를 맞은 것으로 보고 안타까워 할 것이다. 그러나 B(B')가 A(A')를 통합한다고 볼 경우 이들의 비극적 결과는 내재되어 있던 것이며 당연한 귀결이 되고 만다.

환상적 모티프는 역사적 타자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환상적 경험과의 관계 속에서 설화로 탄생한다. 가령 이항복이 백악산신을 만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나, 신숙주에게 청의동자가 따라 다니며 앞일을 예견해주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적 타자들에게 결부되는 환상성은 이와는 다르다. 이들의 자질이 A와 B의 혼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의 자질이 초월적 경험이 아닌 내재한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역사적 주체들에게 결부되는 대부분의 서사의 논리는 'A'(긍정적인 면)가 있어서 결국 A''(긍정적 결과)가 되다'로 정리해볼 수 있다. 역사적 타자들의 환상 서사는 '-가 있으나'라는 역접의 논리이나, 역사적 주체들의 그것은 '-가 있어서'라는 순접의 논리이다. 이들의 서사는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로 제시되지 않기에 향유자들이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통합할까는 중시되지 않는다. 역사적 주체들에 대한 평가는 향유집단의 지역적, 시간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일괄되게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역사적 타자들의 설화는 역접의 서사 논리를 가진다. 그 향유자들은 긍정(부정)을 중심으로 부정

(긍정)을 통합해야 단일한 가치 평가에 도달할 수 있다. 무엇을 중심으로 통합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지역적, 시간적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통합의 과정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쉽게 변화 가능하기에 동일한 향유자가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통합 과정을 거치는 해석적 틀의 존재로 인해,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 즉 역사적 인물 설화의 향유자들의 정체성에는 특수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환상적 이야기 가운데에는 긍정이나 부정 어느 한 쪽으로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향유자들의 가치 평가 없이 전승될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가치평가를 배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향유자의 가치 평가가 모호한 이야기가 환상적 이야기 가운데 다수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일단 제외하고 설화 향유 과정에서 통합을 통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가치 평가를 도출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자.

5. 마치며 - 가변적 정체성의 증폭

앞서 역사적 타자가 등장하는 설화에서 주인공들의 형상화가 환상적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언급했다. 가시적으로는 비늘과 날개, 비가시적으로는 ‘정기’의 형식으로 형상화된다. 이것은 동물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특수함은 등장인물 세계에서 긍정(뛰어남)과 부정(불길함)의 이중적 판단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 된다. 또한 동일한 역사적 타자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기호계에서 이들의 역할을 상반되거나 모순되는데, 이것은 향유집단이 역사적 타자들에 대해 이중적인 가치, 양가적 가치

를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도 설화마다 긍정-부정의 이중적 평가와, 긍정-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평가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향유집단이 역사적 타자들에 대해 이중적, 양가적 평가를 하는 것은, 환상이 해석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최종적 해석을 모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타자들에게 부여된 환상의 특징은 평가를 위해 통합이 필요한 ‘엔트로피 상태’라 할 수 있다.³⁵⁾ 하나의 기호계 안에서 역사적 인물들은 영웅이기도 하고 반영웅이기도 하다. 이들을 영웅으로 형상화하는 설화의 향유집단은 이들을 포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반영웅으로 형상화하는 설화의 향유집단은 이들을 배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서사를 통해 구성되는 향유 집단의 정체성은 동일하지 않다.

배제하는 집단은 이들의 자질이 보통은 아니나 불길한 것으로 본다. 이때 역사적 타자들이 가지는 뛰어난 자질은 보통의 자질이 가지는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부정적 자질을 중심으로 긍정적 자질을 통합하는 향유자들은, 이들의 비극과 최후 결과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들이 대부분 반란 혹은 역모를 일으키거나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배제하는 집단의 정체성은 체제 안정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포용하는 집단은 이들의 자질이 보통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최후 결과를 맞았다고 본다. 향유자들은 자질과 최후 결과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환상적 논리를 개입시킬 수도 있다. 이들을 포용하는 집단의 정체성은 이들을 배제하는 집단의 정체성보다 변화지향적

35) 원래 이 말은 로즈 잭슨에 의해, 정신분석학적 의미로, 즉 “모든 긴장이 소멸되는 열반에 대한 갈망”으로 사용되었다. 로즈 잭슨은 사드의 작품에서 그런 자연적 무질서의 극한을 보고 있다. 로지 잭슨 저,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p.98.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지향과 변화지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합의 과정을 어떻게 거치냐에 따라 매우 일시적이며 불완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역사적 타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에 대한 영웅화가 반영웅화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이 사실이 역사적 타자 설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집단의 정체성은 매우 가변적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안정지향’과 ‘변화지향’을 쉽게 오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정체성(동일성)이 결코 주어지는 것도, 수용되는 것도, 달성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부단히 무한정 지속되는 정체화(동일화)의 환각적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³⁶⁾ 데리다의 언급처럼, 정체성 자체가 원래 가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적 타자들에게 개입되는 환상성은 이들의 자질에 대해 향유자들에게 양가적이며 모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이들의 역할을 영웅으로 때로는 반영웅으로 상반되게 서사화하도록 한다. 가능성의 이야기, 역사적 인물 설화에서 ‘환상성’은 바로 향유집단의 가변적 정체성을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대계』

유몽인 저, 신익철 외 3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pp.1-858.

김동욱 역, 『기문총화』 5권, 아세아문화사, 1999, pp.1-519.

36) 데리다는 ‘정체성(동일성)은 없다. 정체화(동일화)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정체화(동일화)는 불가결하게 그리고 부단하게 대리보충성, 환각성, 혹은 상상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다. 정체화는 언제나 덧붙이기, 보충하기, 대체하기의 논리를 수반한다. 니콜라스 로일 저, 오문석 역, 『자크 데리다의 유명들』, 엘피, 2007, p.139.

- 김균태, 「비극적 장수 설화에 나타난 공통삽화의 서사적 의미와 기능」, 『역사민속학』, 6호, 역사민속학회, 1997, pp.176-208.
- 신정일, 『지워진 이름 정여립』, 가람기획, 2003, pp.1-382.
- 강현모, 「이몽학 설화의 연구」, 『한국학논집』 13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pp.53-112.
- 공임순, 「환상적 역사 소설」, 『서강어문』 15집, 서강어문연구회, 1999, pp.57-79.
- 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pp.1-578.
- 윤재근, 「김덕령 전승연구1」, 『어문논집』, 26집, 민족어문학회, 1986, pp.203-222.
- 윤재근, 「조선시대 저항적 인물 전승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p.1-186.
- 임철호, 「김덕령 설화 연구」, 『한국언어문학』, 22집, 한국언어문학회, 1988, pp.187-216.
- 조영주, 「김덕령 설화 전승 연구」, 『겨레어문학』, 겨레어문학회, 36집, 2006, pp.239-261.
- 조용선, 「정여립 설화에 나타나는 현실인식에 대한 고찰」, 『겨레어문학』 37집, 겨레어문학회, 2006, pp.231-251.
-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pp.1-441.
- 니콜러스 로일 저, 오문석 역, 『자크 데리다의 유행들』, 알피, 2007, pp.1-346.
- 로지 잭슨 저,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pp.1-271.
- 리처드 커니 저,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타자성 개념에 대한 도전적 고찰』, 개마고원, 2004, pp.1-515.
- 존 피스크 저, 강태완·김선남 역, 『문화커뮤니케이션론』, 한뜻, 1997, pp.1-349.
- Yuri M. Lotman,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p.1-349.

ABSTRACT

A Study on the Fantasy in the Historical Others

Ryu, Jeong-Wol

This paper studies the fantastic features in the historical others. The term, 'the historical others' means a people who conspired against the king really or branded as a traitor. The historical others are studied an emphasis on 'real / false' or 'positive / negative'. It is very important the relation of the two terms, because the relation reveals the frame of the interpretation which the people produce and consume about the stories.

This thesis considers the fantasy in the historical others by stages from a configuration to role in narratives. The characters are configured by animal nature. They are figured as a strange man who had scales, wings, or spirit of an animal like snake. The signs are so ambiguous that the consumers can read them negatively and positively. In addition that, the historical others play a role of hero and antihero in the same semiosphere. It is important the consumers have to integrate the negative and the positive value. The integration is not intervened in the process of story interpretation especially on 'the subject', like *Lee, Hangbok*(李恒福, 1556~1618), *Shin, Sukju*(申叔舟, 1417~1475).

The reader or audience of the stories can judge of values, but the judgement can shift from negative to positive one or from positive to negative one very easily. Although a reader estimates the value of a character's act negatively, he can change his judgement in the next time according to the context. Because of the fact, the readers' identity can change very easily, too. Similarly, the identity of the group who enjoy the stories on historical others, can be changed by the response. The fantastic features which the historical others have can amplify the changeability of readers' identity.

Key Words the historical other, fantasy, negative, positive, value, interpretation, integration, identity.

논문투고일 : 2008. 3. 30
심사완료일 : 2008. 4. 20
게재확정일 : 2008. 5. 4